

# 스페인어 어순 연구

## — Jerarquía de familiaridad을 중심으로 —\*

김 은 경

### 1. 서 론

스페인어 어순은 일반적으로 SVO순서가 무표적(no marcado)이라는 데에는 이미 Greenberg (1966)를 포함하는 Hawkins (1990), Siewierska (1993) 등의 보편문법학자들뿐 아니라, Gili Gaya (1963), Hadlich (1982), Contreras (1983) 등의 스페인어 어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SVO가 스페인어의 정상적 어순이라는 것은 다분히 통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통사적 판단을 보완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의미적 또는 화용적으로 SVO 어순이 무표적임을 확인하는 작업은 적어도 스페인어 문법 내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SVO어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법적 설명뿐 아니라 의미적, 화용적 설명 또한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어가 SVO 어순이라는 선형적 가정하에서 이러한 어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 요소들 가운데에서 화용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스페인어의 어순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가 되겠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화용적 판단 기준은 Allan (1987)에 의해 제기되고 Siewierska (1993: 831)에 의해 확인된 어순에 개입하는 요소들의 분류와 그 경중의 등급순서에 근거를 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A) Jerarquía formal

- a. estructuralmente simple > estructuralmente complejo
- b. corto > largo

#### (B) Jerarquía de dominancia

- a. jerarquía personal
  - 1era pers. > 2da pers. > 3ra pers. humana > animales >

\*이 논문은 1994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비에 의해 연구된 것임.

otros órganos>cosas no orgánicas>abstractos

b. jerarquía de papeles semánticos

– agente>paciente>recipiente>benefactivo>instrumental>  
espacial>temporal

(C) Jerarquía de familiaridad

a. tópico más familiar>tópico menos familiar>comentario

b. antiguo>nuevo

c. definido>indefinido

d. referencial>no referencial

이 세 분류는 각각 문장 구성요소의 형태(A), 지배관계(B) 및 친밀도(C)에 근거를 둔 것으로 (A)가 문장 구성요소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짧은 요소가 문두에, 긴 요소가 문미에 위치한다는 내용으로 Hawkins (1990)가 주장하는 수행원칙(performance principle)과 일치하며, (B)는 사람 또는 생물이 무생물보다는 선행하며, 인칭간에는 Kuno (1987)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me-first”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Ba)과 구성요소들의 의미역 사이에는 De Lancey (1981)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작의 주체(agente)가 객체(paciente)보다 선행하는 것과 출발점(recurso)이 도달점(meta)을, 수여자(el que da)가 수신자(el que recibe)를 각각 선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열순서(natural attention flow)라는 점을 내포하고, (C)는 친밀도라는 명칭하에서 화용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화제(tópico)가 논평(comentario)에 선행하며, 주제(tema) 및 한정적(definido) 또는 지시적(referencial) 요소가 논술(rema) 및 비한정적(indefinido) 또는 비지시적(no referencial)요소보다 선행한다는 일반적 어순 등급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Siewierska (1993: 839)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서로 상이한 어순등급을 친밀도 등급(C)>지배관계(B)>형태적 등급(A)의 순서로 상대적 등급을 다시 부여하여 화용적 판단기준에 근거한 친밀도 등급(C)이 가장 상위에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스페인어에서는 문장의 구성요소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된 인칭 및 의미역보다는 발화상황에 대한 화자의 개입 및 흥미와 관심의 대상에 초점을 둔 화용적 판단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C)>(B)>(A)의 상대 등급은 스페인어의 어순을 설명하는 대전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 (B), (C)의 분류는 실제의 문맥에서 분리 적용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C)의 화용적 개념들이 (B)가 제시하는 의미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C)의 경우 화제와 논평 및 주제와 논술 등의 개념들은 서로 중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순에 실제로 개입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자주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정의상 경우에 따라 서로 상반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아울러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화제와 논평, 주제와 논술 및 초점(foco)과 초점의 환경(información de fondo)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한 스페인어의 어순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2. 전통문법(Gili Gaya)

보편문법에 있어서 어순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스페인어의 어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어의 전통문법 내에서는 유일하게 Gili Gaya (1961)가 어순에 관심을 가졌을 뿐, 스페인어 문법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Bello나 한림원 문법에서도 어순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sup>1</sup>

스페인어 어순에 대한 Gili Gaya의 연구는 대체로 피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스페인어 어순에 관한 Gili Gaya의 생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문장의 2분 원칙(bipartición oracional)
- (2) 동사의 두번째 자리 배열 원칙(colocación del verbo en el segundo lugar)

이 두 가지의 외형상 서로 다른 원칙들은 실제로는 동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Gili Gaya가 제시하는 어순은 동사 중심의 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 (1)에서 언급된 문장의 2분원칙이란 라틴문법에서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장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sujeto)와 서술어(predicado)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서술어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이는 주어가 일반적으로 문장의 다른 요소들에 비해 더욱 큰 흥미 또는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서술어의 핵심 동사가 여러 종류의 보어를 취할 때는 주어>동사>직접목적어(complemento

<sup>1</sup> 1973년의 스페인 한림원 문법서(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에서 어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Gili Gaya가 1961년 자신의 저서(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며, 이는 실제로 어순에 관한 기술에 있어 Gili Gaya가 깊이 참여한 데 기인한다.

directo)>간접목적어(complemento indirecto) 또는 상황보어(complemento circunstancial)의 어순임을 내포한다.

따라서, 주어가 아닌 다른 요소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는

(3) A las siete vendrá Juan. (Gili Gaya: 85)

(4) Vendrá Juan a las siete. (Ibid.)

화자가 각각, A las siete(3)와 Vendrá(4)를 강조할 목적으로 문두에 위치한 것으로 설명한다.

(2)에서 언급하는 동사가 어순상 두번째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포상 동사가 세번째 또는 네번째 출현하는 경우가 모두 비문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있다.

(5) a. La mañana era hermosa. (Gili Gaya: 87)

b.\*La mañana hermosa era. (Ibid.)

c. Era la mañana hermosa. (Ibid.)

d. Era hermosa la mañana. (Ibid.)

e. Hermosa era la mañana. (Ibid.)

f.\*Hermosa la mañana era. (Ibid.)

(6) a. El criado trajo una carta para mí. (Gili Gaya: 88)

b.\*El criado una carta trajo para mí. (Ibid.)

c.\*El criado una carta para mí trajo. (Ibid.)<sup>2</sup>

(7) a. Su hermano contaba con emoción a los reunidos lo sucedido en casa. (Ibid.)

b. Contaba su hermano con emoción a los reunidos lo sucedido en casa. (Ibid.)

c.\*Su hermano con emoción contaba... (Ibid.)

d.\*Lo sucedido en casa contaba su hermano... (Ibid.)

(5), (6), (7)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문장의 구성요소의 수와 무관하게 동사의 위치가 문두이거나 두번째일 경우에는 문법성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비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Gili Gaya (1961: 89)는 동사의 위치가 문두나 두번째가 아니더라도

<sup>2</sup>Gili Gaya (1961: 88)는 주어+동사+직목적어+간목적어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된 문장의 24개의 가능한 문맥 분포를 모두 나열하여 문법성을 판단하였는데, 그 비문들의 공통된 현상은 동사의 위치가 세번째 또는 네번째 자리에 출현하고 있는 점이다.

도 문장 내에서 최대의 강세를 받는 경우에는 문법성이 유지된다고 한다.

(8) Nada me DIjo aquel día.

(9) La casa a todos nos ha pareCido demasiado cara.

(10) El chico pruebas me ha Dado de su capacidad.

즉, (8), (9), (10)에서는 동사에 문장 강세(acento principal de intensidad del grupo)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정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Gili Gaya의 동사 중심의 어순이론은 스페인어가 로망스어 중에서도 특히 동사의 활용이 발달되어 있어 활용어미가 주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전치사 a를 대격목적어 앞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문법적 기능이 쉽게 파악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유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Gili Gaya의 어순이론은 문장의 핵인 동사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문장의 2분원칙과 동사의 두 번째 배열 원칙은 동사와 주어와의 관계를 고려하고는 있으나,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으며,<sup>3</sup> 특히, 앞서 살펴 본(4)의 경우처럼 동사가 문두에 위치할 때 강조적이라는 판단은 H. Contreras (1983: 42)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문어에 제한되어 적용되어질 뿐이며 구어상으로는 문장의 어떤 요소에도 강세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두만이 강세의 위치라는 판단은 스페인어의 강세 위치가 운율상 강약격(trocaico:(   ,   ))이라는 Navarro Tomás의 음성학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일 뿐, 문장 구성요소의 의미적, 문법적 기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또한, (8), (9), (10)과 같은 경우처럼 동사의 위치가 순서상 비정상적으로 배열되어 있어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문법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두만이 강세의 위치가 아닐 뿐더러 동사가 문두에서만 강조되는 것도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Gili Gaya는 동사가 문장 강세를 받지 못하는 문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pár: 75), 동사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2분화가 불가능하며(pár: 76), 주어가 문두에 있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는 음성적

<sup>3</sup> (5c)에 나열된 “Era la mañana hermosa”의 경우에는 Gili Gaya (1961: 87) 자신도 지적한 것처럼 mañana에 강세를 두지 않은 경우, 형용사 hermosa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 더 이상 (5a)와 같은 종류의 속사구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순과 관련된 문장의 2분원칙은 속사구문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문장의 구성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설명력이 더욱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지적을 Alvarez (1986: 20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으로 독립적이 되어 두 요소간의 휴지(pausa)가 가능한 이유는 동사가 활용어미를 통해서 주어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pár: 76bis), 이 또한 문장이 어순상 주어나 동사를 문두나 두번째 자리에 배열한 경우이나 가능한 설명일 뿐, 동사를 의도적으로 문미에 후치하거나 반대로 주어를 문미에 후치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Gili Gaya에 의해 이루어진 스페인어 어순 연구는 스페인어가 대략 SVO어순을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논리규칙과 무관한 화자의 발화상황 및 개인적 선호, 표현상의 강조 또는 특정 언어집단의 공통적인 운율적, 음성적 실현방법이 개입된 결과라는 피상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3. Tópico/comentario

스페인어의 화제화(topicalización) 현상은 H. Contreras (1983: 98)에 의하면 화제화 요소(topicalizador)인 en cuanto a, hablando de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화제의 부가(adjunción)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11) En cuanto a la mujer, no hay duda que se la posterga.
- (12) Este gobierno estúpido, ¿qué es lo que pretende?
- (13) ... a un hermano por lo menos hay que escribirle una cuartilla.

또한, Contreras (1983: 99)는 화제화는 논술이 아닌 요소(-rema)에만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며, 화제를 전치하는 경우 반드시 대명사가 주절에 반복된다고 했다. 화제가 대명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11), (12), (13)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고, 이러한 반복 현상은 화제를 논술(rema)과 구분하는 형태적 근거이기도 하다.

- (14) a. Eso me lo dijiste AYER.
- b. ESO me dijiste ayer.<sup>4</sup>

즉, (14a)의 Eso는 화제이고, (14b)의 ESO는 논술에 해당하며, 그 구분의 근거는 대명사 lo의 출현 유무에 의거한다.

일반적으로 화제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언급되어지는 문장의 구성요소를 의미하고(what is spoken of) 논평(comentario)은 화제에 대해 언급된

<sup>4</sup> 신정보(rema)는 구정보(tema)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what is said about topic)<sup>5</sup> 화제가 반드시 주어진 구정보에 해당하는 주제(tema)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B. Primus (1993: 881)가 지적한 것처럼, 주어진 정보(información antigua) 또는 배경정보(información de fondo)는 화제라는 개념의 고유자질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루마니아어처럼 화제의 구조적 위치가 문법적으로 정해진 언어에서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논술(rema)이 화제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 (15) a. Care dintre colegi era acolo? (Primus: 882)  
 (¿Cuál de colegas estaba allí?)  
 b. ION era acolo.  
 (Juan estaba allí)  
 c.\*Acolo era ION.  
 (Allí estaba Juan)

(15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ON은 논술이지만 동시에 화제의 고유 위치에서 화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문이고, (15c)에서는 반대로 ION이 화제의 고유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또한, Gundel (1988)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전개된 Primus (1993: 881)의 화제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도 다음과 같이 문두에 오는 경우가 무표적이다.

- (16) a. No marcado: [...Xtóp... Ypred...]  
 b. Marcado: [...Ypred... Xtóp...]

아울러, Primus (1993: 883)는 스페인어의 화제의 위치도 (16)에서 제시한 원칙과 일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15)와 (16)을 통해서 살펴 본 것처럼 주제(tema)뿐 아니라 논술(rema)도 화제가 될 수 있다는 루마니아어의 증거와 문두를 화제의 무표적 위치로 하는 언어에 스페인어도 포함된다는 일반원칙에 근거할 때, (14a)와 (14b)가 화제와 논술의 구분이라는 판단은 Contreras의 성급한 단정이라고 볼 수 있고, 목적어 Eso와 ESO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일단 이 요소들이 위치상으로 무표적인 화제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Contreras (1983: 100)는 화제가 문두로 전치하는 경우는 부가(adjunción)현상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였다.

<sup>5</sup> Siewierska (1993: 832) 참조. 이밖에도 화제와 논평의 정의에 대해서는 Brown & Yule (1983), Dik (197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17) Anteposición del tópic (regla obligatoria)

o [X+Ytóp]

1 2 → 2 # 1 + [+pro]

이 규칙은 화제가 원래 자리에서부터 문두로 부가되어 (#) 이동하여 있던 자리에 대명사를 복사해 놓으면, 부가된 화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휴지(pausa)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Contreras가 제시한 이 규칙에 의거하면, 앞서 살펴 본 (14a=18)의 목적어 Eso는 문장구조상 부가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8=14a) Eso, me lo dijiste AYER.

이와 같은 화제의 부가현상은 Primus (1993: 884)가 정의한 left-dislocation에 해당하며 그 특징은 반드시 대명사를 복사해 남긴다는 것이다. 또한, Primus는 화제의 좌측부가를 영어, 이탈리아어 등의 공통된 현상으로 간주하는데, 스페인어에 있어서도 (11), (12), (13)처럼 화제가 화제화 요소에 의해 이끌리는 경우에는 좌측부가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 설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화제가 유표적으로 문미에 놓이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19) He's shrewd, that one. (Primus: 995)

(20) Au intrat la pravaliasi in dirdiuma, au rasturnat

(ha entrado a dueños en pub , ha derramado)

butoaiele cu tuica, ei s-au ascuns, pravaliasii. (Ibid.)

(barriles con licor, ellos se han escondido, los dueños)

(21) a. No hay duda que se la POSTERGA a la mujer. (Contreras: 98)b. No hay duda que se POSTERGA a la mujer.

(19)와 (20)은 각각 영어와 루마니아어의 화제의 우측부가(right-dislocation) 현상을 보여주는 예문들이며, 각각 좌측에 대명사를 복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제는 좌측부가가 일반적이지만 우측부기도 허용한다는 것이며, 부가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대명사가 복사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1a), (21b)는 Contreras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제(21a)와 주제(21b)의 구분이라기보다는 (21a)는 화제의 우측부가가 있었기 때문에 POSTERGA와 a la mujer 사이에 휴지를 두고 발음해야 하는 문맥에 해당하고, (21b)는 단순히 화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맥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스페인어의 화제의 위치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어가 화제인 경우 문두이건 문미이건 좌측부가 또는 우측부를 통해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휴지를 통해 구분되고 반드시 대명사의 복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화제는 개념상 문장의 특정한 구성요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주어를 포함한 다른 논항(argumento), 심지어는 서술어도 화제가 될 수 있다.

- (22) a. Y vos y yo y todos seguiremos el mismo camino. (Contreras: 98)  
 b. En cuanto a vender, vendió hasta su casa la pobre. (Contreras: 99)

(23=12) Este gobierno estúpido, ¿qué es lo que (pro) pretende?

(22a), (22b)는 각각 주어와 동사가 화제로 사용된 문맥이며, 화제화된 요소가 각각 동사(seguiremos, vendió)를 통해서 반복되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반복은 (2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에 다른 문장이 놓여 있어도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앞서 우리가 목적어가 화제로 사용된 경우(18=14a), 화제와 나머지 부분이 휴지로 분리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휴지는 주어가 화제화된 (22a)의 경우 적용된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장에서 Gili Gaya의 문장의 2분원칙을 언급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주어가 동사를 선행할 경우 주어와 동사는 음성적으로 독립적이 되어 두 요소간의 휴지가 가능하고 이는 동사가 활용어미를 통해 주어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어에서는 문장의 한 구성요소가 화제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로망스어의 경우처럼 좌측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측 부가도 드물게 허용하지만, 화제화된 요소는 반드시 그것이 대명사이건 동사의 활용어미이건 상관없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ontreras가 각각 논술과 주제라고 주장하는 (14b)와 (21b)는 그 실체를 규명하기에 앞서 일단 화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맥이라고 볼 수 있다.

#### 4. Tema/remata/foco

##### 4.1. Tema/remata

주제와 논술이라는 상반된 두 개념은 프라하 학파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발전된 것으로 문장의 구성요소들을 정보 기능의 측면에서 어순과 연계하고 있다. Mathesius (1928)에 의해 제안되고 Danes (1967)와 Firbas (1964, 1966)로 계승된 주제와 논술은 한 마디로 각각 구정보(información antigua)와 신 정보(información nuev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개념에 근거를 두고 스페인어의 어순을 설명한 Contreras

(1983: 36)는 주제와 논술을 각각 화자의 관점에서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요소와 청자의 의식에 전달하려는 요소로 정의하여 화용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Mathesius는 주제가 논술에 선행하는 어순(TR)을 객관적 어순으로, 반대로 논술이 주제를 선행하는 어순(RT)을 주관적 어순으로 인식하는데,<sup>6</sup> 이는 같은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어진 정보가 새로운 정보에 선행한다는 공통된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Contreras도 스페인어에 있어서 한 개의 논항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4) a. Empezó la RESISTENCIA. (TR)

b. La resistencia EMPEZÓ. (TR)

(25) a. La RESISTENCIA empezó. (RT)

b. EMPEZÓ la resistencia. (RT)

(24)의 경우처럼 구성요소의 성분과 무관하게 주제가 논술에 선행하는 어순(TR)이 정상적이고, (25)의 경우처럼 논술이 주제를 선행하는 어순(RT)은 강조적 어순으로 Mathesius가 언급한 주관적 어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주제와 논술에 근거한 어순분석은 (24), (25)의 경우처럼 문장이 한 개의 논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 적용될 수 있지만, 논항의 수효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6) a. MARÍA pronunció un discurso. (Contreras: 109)

b.\*Pronunció un discurso MARÍA.

c.\*Pronunció MARÍA un discurso.

(27) a. Don Fermín sacó de la sala sus ESPUELAS. (Contreras: 94)

b. Sacó sus espuelas de la sala don FERMÍN.

c. Don Fermín sus espuelas de la sala SACÓ.

(28) a. Don Fermín sacó sus ESPUELAS de la sala. (Ibid.)

b. Don FERMÍN sacó sus espuelas de la sala.

c. Don Fermín SACÓ sus espuelas de la sala.

(26)의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인 María가 논술인 경우인데, 논술이 문미에 후치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26b)와 (26c)는 모두 Contreras에 의해 비문으로 처리된다. 또한, (27a), (27b), (27c)는 각각 목적어, 주어 및 동사가 논술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소들이 주제인 경우인데, (26)과 유사

<sup>6</sup> 재인용, Contreras (1983),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p. 35 참조.

하게 논술이 문미에 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ontreras는 (27)보다는 (28)이 훨씬 더 적합한 어순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상적인 TR어순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Contreras는 문장 구성요소의 의미역을 중심으로 논술의 등급(jerarquía remática)을 설정하고,<sup>7</sup> 이를 근거로 하여 논술보다 높은 등급의 주제가 논술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문법성이 저하되고,<sup>8</sup> 그 문법성의 정도는 그러한 등급위반을 하는 요소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9</sup>

이와 같은 Contreras의 어순 분석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보이며, 주제와 논술의 개념을 극대화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이미 발화된 문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소용이 될 수 있겠으나, 발화상황 속의 화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과연 복잡다단하기 짝이 없는 논술 등급과 한 문장에 포함된 주제와 논술의 수효에 비례하는 가능한 어순 분포<sup>10</sup>를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26a)와 (2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의 구성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요소가 논술인가와는 무관하게 주어와 동사가 고정적으로 문두와 두번째에 놓이는 어순이 선호된다는 점과 이러한 정상적인 어순에서도 논술인 요소들은 강세를 통하여 음성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제와 논술을 이용한 어순 분석은 현실적으로 문장의 구성요소가 2개 이내인 경우어나 그 적용의 타당성과 용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sup>7</sup> Contreras (1983: 114)가 의미역간의 분포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스페인어의 논술등급은 다음과 같다.

1. Instrumento, adverbio de modo, adverbios 'fuertes' de tiempo y lugar.
2. Destinatario.
3. Complemento, procedencia, locativo, temporal, identificador, beneficiario.
4. Paciente.
5. Agente, causa, posesor, sensor.
6. Adverbios 'débiles' de tiempo y lugar.

또한, Contreras (1983: 67)는 동사(predicado)는 항상 제일 낮은 등급보다 바로 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동사의 위치가 어순상 항상 두번째라는 Gili Gaya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sup>8</sup> Contreras, op. cit., p. 110 참조.

<sup>9</sup> Ibid., p. 113 참조.

<sup>10</sup> 실례로, 구성요소가 1개인 경우 가능한 어순 분포는 2개(TR, RT)이고, 구성요소가 2개인 경우에는 분포가 6개(TTR, TRT, RTT, TRR, RTR, RRT)로 늘어나며, 구성요소가 3개인 경우에는 분포가 12개로 늘어날 뿐 아니라, 여기에 강조어순을 첨가할 때는 더욱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sup>11</sup> 더구나, Contreras는 주제와 논술에 근거한 스페인어 어순 연구의 결과로 25개에 달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주제 > 논술(TR)의 정상적인 어순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수많은 제한 조건에 의해 희석되어져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Contreras, op. cit., pp. 156 ~ 160 참조).

#### 4. 2. Foco

주제 및 논술의 구분과 유사한 화용적 개념으로 초점(foco)을 생각할 수 있다. Primus (1993: 887)에 의하면 초점은 개념적으로 문장의 구성요소 X와 초점운용소 Y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초점화되지 않은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Y의 환경이 된다. 스페인어에서 Y는 sólo, solamente, hasta 등의 부사 또는 no... sino와 같은 대조의미의 부정어들을 통해서 외현적일 수도 있지만, 독일어, 영어 등의 유럽어에서처럼 묵시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미적으로 특정한 요소를 초점화한다는 것은 초점화된 요소와 동일한 의미유형을 지닌 일련의 대상을 전제한다. 따라서, 단언적 문맥에서 초점이란 화자에 의해 특정적으로 선택된 요소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초점은 새로운 정보에 해당되고, 초점의 환경(background: información de fondo)은 주어진 정보 또는 전제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Primus (1993: 888)에 의하면, 초점은 협역적(foco estrecho)일수도 광역적(foco amplio)일 수도 있는데, 형태적으로 각각 초점이 하나의 구성요소 또는 VP, S, CP에 해당하며, 스페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29) —¿Quién dio a María el libro?  
 a. [Juan] dio a María el libro.  
 b. [El padre de Juan] dio a María el libro.
- (30) —¿Qué hizo Juan?  
 —Juan [dio a María el libro].
- (31) —¿Qué pasó?  
 —[Juan dio a María el libro].

(29)의 괄호 안의 부분이 협역적 초점에, (30), (31)의 괄호는 광역적 초점에 해당한다. (29a)의 경우에서처럼 초점이 한 낱말인 경우에는 이 낱말에 제 1 강세가 주어지고, (29b), (30), (31)의 경우에는 초점그룹이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강세를 갖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밑줄 친 요소에 제 1 강세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역적 초점과 광역적 초점의 구분은 초점화된 요소의 통사적 비중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 대조구문의 초점은 협역적이라 할 수 있고 (32a, 32b), 초점요소(operador de foco)에 이끌리는 초점은

<sup>12</sup>Primus (1993: 888)는 초점과 초점의 환경이 신정보 및 구정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언적 초점의 경우 신정보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운용요소의 위치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33, 34).

- (32) a. Juan no es [un médico] sino [un charlatán].  
 (33) a. Sólo [Juan] puede hacer eso.  
       b. Sólo [di un vistazo al borrador].  
 (34) a. Hasta [un idiota] lo entiende.  
       b. Hasta [se atrevió a tocarme].

Contreras (1983: 79)는 이와 같은 초점운용요소들을 논술화요소(rematizador)라고 인식하는데, 둘 다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고 강세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스페인어에서도 영어의 분열문(cleft-sentence) 또는 의사 분열문(pseudo cleft-sentence)처럼 초점구문이 존재한다.

- (35) a. Fue [Juan] quien te llamó anoche.  
       b. Es [comiendo] como se engorda.  
       c. Eran [los lunes] cuando no teníamos clases.  
       d. Fue [en Toledo] donde la conocí.

(35)에서는 분리된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초점을 이루고 있고 또 이러한 점이 초점구문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Prince (1978) 및 Primus (1993) 등이 지적한 것에 의하면 분리된 요소가 반드시 초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 (36) a. Lo que te quiero decir es [<sub>loc</sub> el hecho de que tu regreso le ha dado mucho gusto a tu padre].  
       b. Lo que yo desearía es [<sub>loc</sub> que me dejaras en paz].

(36)과 같은 구문에서는 분리된 요소가 외형상 문두에 위치하지만, 분리해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로 문미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장의 좌측에 대명사적 요소를 복사(copia pronominal: pronombre catafórico)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측에 위치한 요소가 실제적인 초점임을 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36a)와 (36b)에서는 관계대명사 lo que가 문미에 위치한 초점의 대명사적 복사(copia pronominal)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초점을 중심으로 어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점을 이루는 단위 자체가 문장의 한 구성요소이거나 아니면 동사구 전체 또는 문장으로 양분되기 때문에, 문장의 개별요소마다 하나하나 독립된 의미역과 주제와 논술의 자질을 부여하는 Contreras의 어순 분석보다 적용상

훨씬 용이하고 발화행위상의 화자의 입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초점에 의거한 어순 분석은 초점의 길이에 의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협역적일 경우에는 문두에(35), 광역적일 경우에는 문미에(36)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스페인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Primus (1993: 889)는 초점어순의 일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7) For languages with free focus placement:

- a. Short(i.e. narrow) focus is preferably placed at the left periphery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rder rules(and accentuation rules) of grammar.
- b. Long(i.e. wide) focus is preferably placed at the right periphery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rder rules(and the accentuation rules) of grammar.

이 정의가 시사하는 바는 한 마디로 초점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스러운 언어에서는 협역적 초점은 문장의 왼편에 광역적 초점은 문장의 오른편에 배열하는 어순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Primus의 이러한 일반 원칙은 초점이라는 화용적 개념과 관련된 어순에 대한 것이지만, 순수히 통사적 근거에 바탕을 둔 Hawkins (1990: 233)의 수행이론(performance theory)의 EIC (Early Immediate Constituents)와도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sup>13</sup>

Hawkins의 수행이론이 언급하는 것은 발화상황에서 화자는 청자가 신속하게 문장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어순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이를 수치를 통해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예를 들어,

(38=35a) a. [<sub>v</sub> Fue [<sub>NP</sub> Juan] [<sub>NP</sub> quien te llam6 anoche]].

1/1	2/2	3/3	3/4	3/5	3/6
100%	100%	100%	75%	60%	50% (부가율: 81%)

<sup>13</sup>Hawkins (1990: 233)는 EI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arly Immediate Constituents (EIC): The human parser prefers to maximize the left-to right IC-to-word ratios of the phrasal nodes that it constructs.

<sup>14</sup>Hawkins (1990: 233-234)의 어순 선호도의 계량화는 좌우직소 대 낱말 비율(left-to-right IC-to word ratio)을 산정하는 것인데, 이는 (37)에서 행한 것처럼 문장의 제일 좌측에서부터 직소의 수와 낱말의 수의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그 평균치가 부가율에 해당한다.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도(CRD)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히 높은 비율을 갖는 어순이 선호된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b. [[<sub>NP</sub> Quien te llamó anoche] [<sub>V</sub> fue [<sub>NP</sub> Juan]]]

1/1 1/2 1/3 1/4 2/5 3/6  
100% 50% 33% 25% 40% 50% (부가율: 50%)

(38a)와 (38b)의 좌우직소 대 낱말 비율(left-to right IC-to-word ratio)의 평균치가 각각 81%와 50%로 산정되며,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38a)의 어순이 (38b)보다 선호된다는 것이다. 즉, (38a)는 문장의 직소인식영역(CRD)이 세 낱말인데(fue<sub>V</sub>, Juan<sub>NP</sub>, Quien<sub>NP</sub>), (37b)는 여섯 낱말((Quien, te, llamó, anoche)<sub>NP</sub>, fue<sub>V</sub>, Juan<sub>NP</sub>)이며, (37b)에서처럼 긴 직소가 문두에 놓이게 되면 그만큼 다음의 직소를 인식하는 것이 짧은 직소를 문두에 가진 구문보다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Hawkins의 수행이론을 통한 검증 작업은 스페인어에 있어서도 Primus가 제시한 초점어순의 일반원칙(37)이 잘 지켜질 수 있다는 통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주제와 논술을 이용한 어순 분석보다 초점어순이 적어도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 5. Aspectos interrelacionales

### 5. 1. Tópico y foco

앞서 3장에서 화제와 논평에 의한 어순을 분석할 때, 스페인어에서 화제는 문두에 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4.2에서는 초점어순의 경우, 협역적 초점은 문장의 좌측에, 광역적 초점은 우측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수행이론에 의해 통사적으로 실증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화제와 초점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화제는 단순히 언급의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내용상 반드시 새로운 정보에만 제한되지 않고 주어진 정보도 화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초점은 새로운 정보인 주제와 일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법적으로 화제는 논평과의 구분을 위해서 목적어 화제일 경우에는 부가형태를 취하고 주어 화제인 경우에는 동사와의 발음상 휴지를 취할 뿐이지만, 초점의 경우에는 문장의 제1강세를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점이 화제가 될 수 있지만, 화제가 반드시 초점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39)와 (40)의 구분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낱말로 이루어진 요소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는 그 요소가 화제화되었음을 암시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39) a. [Quienquiera que sea el autor de Every Breath You Take], es [genial].  
 Tóp. Foc.  
 (Leonetti, 76)
- b. [El autor de Every Breath You Take], quienquiera que sea, es [genial].  
 Tóp. Foc.  
 (Ibid.)
- (40) a. [Quien te llamó anoche] fue [Juan].  
 Tóp. Foc.
- b. [Como se conoce un país] es [viajando].  
 Tóp. Foc.

(39)와 (40)의 전치요소들이 화제화되었다는 증거로서는 (39a), (40)의 경우에는 문장 주어와 동사구 사이의 휴지를 들 수 있고, (39b)에서는 대명사의 복사(quienquiera)를 들 수 있다. 또한, (39), (40)의 문미에 위치한 genial, Juan, viajando는, 문장의 제1강세를 부여받으면 초점화할 수 있고, 이는 화제와 초점이 공존할 수 있음도 아울러 시사해 준다.

(39)와 (40)은 앞서 살펴 본 4.2의 (35)와 반대의 어순을 이루고 있으며, (35)의 경우에는 초점어순으로 화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제화가 초점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화제화의 위치는 문두로 고정되려는 경향이 있지만, 초점화는 상대적으로 위치 선정이 자유롭고 (37)에서 제시한 Primus의 일반원칙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점어순은 Hawkins의 수행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화제어순은 (39)와 (40)에서 볼 수 있듯이 EIC를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화제어순이 초점어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 5.2. Tópico, foco y definitud

스페인어에서 주어는 정명사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41) a. El caballo corre en el hipódromo. (Alvarez: 206)  
 b.\*Caballo corre en el hipódromo. (Ibid.)

<sup>15</sup>Haiman (1993: 903)은 어순 배열의 첫번째 보편원리는 화제를 문두에 배치하는 것이고, 두번째 보편원리는 문두에 초점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주로 영어에 근거한 것으로, 영어에서 가정절(prótasis)이 귀결문(apódosis)에 선행하고, 의문사가 문두에 배치되는 일반적 경향을 지칭하고 있어 실제로는 주어진 정보가 새로운 정보에 선행하고, 초점화된 정보가 다른 요소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화제어순이 초점어순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단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목적어가 전치하여 화제가 되는 경우에도 정명사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46) a. Las manzanas las ha probado. (Alvarez: 211)  
 b. Sus espuelas don Fermín las sacó de la sala. (Contreras: 96)

또한, 목적어가 전치되어 화제화하는 경우 대명사가 복사되는 것이 의무적이다. 그러나, 부정명사구가 전치하는 경우에는 대명사의 복사가 있게 되면 오히려 비문으로 처리된다.

- (47) a. Manzanas ha probado. (Alvarez: 211)  
 b.\*Manzanas las ha probado. (Ibid.)

이와 같은 문법성의 판단에 근거하면, (47)의 부정명사구 목적어는 대명사의 복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47a)는 (45)의 경우처럼 다음과 같은 대조구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 (48) [<sub>loc</sub> Manzanas] ha probado; no [<sub>loc</sub> peras].

주어 부정명사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부정명사구를 초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17</sup> 아울러, 3장에서 규명하지 못하였던 (14b=49)의 목적어 전치도 초점어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 (49=14b) a. Eso me dijiste ayer.  
 b. [<sub>loc</sub> Eso] me dijiste ayer; no [<sub>loc</sub> aquello].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스페인어에서 화제화는 정명사구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초점화는 부정명사구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정명사구는 화제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와 도치되는 것이 일반적

<sup>17</sup>Contreras (1983: 103)는 선택적 규칙으로 전치된 목적어가 총칭적 의미를 지닐 경우 대명사의 복사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즉,

- a. Trigo no (lo) HAY en este país.  
 b. Dictadores (los) hay MUCHOS en nuestra pobre América..  
 c. Burócratas no (los) NECESITO en este departamento.  
 (대문자는 rema 표시임.)

이와 같은 주장은 부정명사구도 전치하여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명사구가 전치하는 경우는 초점에 해당하며, 대명사의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우리의 관점과 외형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칭적 의미의 부정명사구만이 제한적으로 화제화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관점이라 할 수 없다. 총칭적 의미가 시사하는 바는 관사의 사용과 무관하게 화자의 의식세계에는 보편적으로 인식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개념에서 볼 때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주어진 구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제화가 가능하고, 또한 대명사의 복사도 가능하다.

이지만, 초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치되어 문두에 위치할 수 있다.

## 6. Conclusión

본 연구는 주제와 논술, 화제와 논평, 초점과 초점의 환경 및 한정성과 같은 화용적 개념을 중심으로 스페인어의 어순을 분석한 것이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얻어 내었다.

첫째, 스페인어 전통문법의 범주 내에서는 Gili Gaya의 연구가 유일한 것이며, Gili Gaya의 연구는 (i)문장의 2분 원칙과 (ii)동사의 두번째 자리 배열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한 마디로 동사중심의 어순이론이라 할 수 있겠다. Gili Gaya는 문장구성요소의 어순 배열에 있어 가능한 모든 분포를 나열하여 문법성을 가리는 분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이론 전개를 하였지만, 지나치게 문어 중심으로 발화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구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SVO의 정상적인 어순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i)동사의 두 번째 자리 배열 원칙은 나중에 Contreras에 의해 검증되는 날카로운 직관이 있음이 인정되기도 한다.

둘째, 화제와 논평은 전통문법의 주어와 서술어를 대신하는 화용적 개념으로 Gili Gaya의 (i)문장의 2분 원칙과도 관련이 있지만, 목적어가 전치(부가)되어 이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통문법상의 2분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스페인어에서는 Primus가 제시한 화제의 문장 내 위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잘 적용된다 할 수 있으며, 화제화된 요소는 의미역과 무관하게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휴지를 통해서 분리되며,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의 활용어미를 통해서, 목적어인 경우에는 대명사의 복사를 통해서 화제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프라하 학파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주제와 논술에 근거한 Contreras의 스페인어 어순 연구는 문장의 구성요소가 2개 이내인 경우에는 설명력이 있으나, 3개 이상인 문장에서는 기본적인 TR어순 원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ontreras는 이러한 경우들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의 구성요소의 의미역들 사이의 논술등급(jerarquía remática)을 제시하고 변형문법에 근거한 일련의 규칙화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들 규칙들은 대다수가 TR원리에 대한 제한조건들로서 원리와 조건들간에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제와 논술을 대신하여 논술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는 초점과 초점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여 스페인어 어순에 적용하였으며, Primus가 제시한 초점어순의 일반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Hawkins의 수행이론의 EIC 계량화 작업을 통해

초점어순에 대한 통사적인 증거도 아울러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화용적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화제와 논평에 의거한 어순분석과 초점과 환경을 통한 어순 분석은 상호보완적으로, 특히 초점을 통한 어순 분석은 화제를 통한 어순 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초점이 화제가 될 수 있지만, 화제가 반드시 초점일수는 없다는 개념상의 상관관계를 통해 화제어순이 초점어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명사구의 한정성은 화제 및 초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화제화는 정명사구에만 제한되고, 부정명사구가 문두에 전치되는 경우는 대조적 문맥으로 연장될 수 있는 초점구문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화제화와 달리 초점화는 명사구의 한정성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내었다.

### 참고 문헌

- Allan, Keith (1987) 'Hierarchies and the choice of left conjuncts', *Journal of Linguistics* 23, 51-77.
- Alonso, Amado (1982) *Estudios Lingüísticos: temas españoles*, Gredos, Madrid.
- Alvarez Martínez, M. A. (1986) *El artículo como entidad funcional en el español de hoy*, Gredos, Madrid.
- Brown, G. y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 Contreras, Heles (1983)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Cátedra, Madrid.
- Danes, F. (1967) 'Order of Elements and Sentence Intonation', en *To Honor Roman Jakobson*, 499-512, Mouton.
- DeLancey, Scott (1981) 'An Interpretation of Split Ergativity and Related Patterns', *Language* 57.3, 626-59.
- Dik, Simon C. (1978) *Functional Grammar*, Academic Press, London.
- Firbas, J. (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Philologica Praguensia* 8, 170-176.
- Gili Gaya, S.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 Greenberg, J. (1966) *Universals of Langua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Feature Hierarchies*, The Hague.
- Gundel, Jeanette K.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Hammond, Moravcsik & Wirth, 209-244.

- Hadlich, Roger L. (1982) *Gramática transformativa del español*, Gredos, Madrid.
- Haiman, John (1993) 'Iconicity', *Syntax*, Vol 1, 896-904.
- Hawkins, John A. (1990) 'A Parsing Theory of Word Order Universals', *Linguistic Inquiry*, Vol. 21.2, 223-261.
- Pafel, Jurgen (1993) 'Scope and Word Order', *Syntax*, Vol. 1, 867-880.
- Porto Dapena, Alvaro (1986) *Los pronombres*, edi-6, Madrid.
- Primus, Beatrice (1993) 'Word Order and Information Structure: A Performance-Based Account of Topic Positionis and Focus Positions', W. Gruyter,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Syntax)* Vol.1, 880-896, Berlin.
- RAE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 Siwierska, Anna (1993) 'On the Interplay of Factors in the Determination of Word Order', *Syntax*, Vol. 1, 826-846.

## ABSTRACT

### Word Order in Spanish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miliarity Hierarchy

Un Kyung Kim

This work tries to explain word order in Spanish based on pragmatic factors like topic and commentary, theme and rheme, and focus and background.

Theoretically, this research starts from Siewierska's point of view about the word order which states that the familiarity hierarchy prevails upon the dominance hierarchy and the formal hierarchy.

First of all, we have reviewed Gili Gaya's study in the domain of Spanish traditional grammar and we have recognized his insight about the position of the verb (in the second position of the sentence).

Secondly, the analysis has defined the topic position determining it normally in the left-periphery with the pronominal copy in the rest of the sen-

tence.

We have examined Contreras' theme-rheme analysis of Spanish word order and we have observed that this Pragan method can explain little and lose much because in Spanish there exist many exceptions to the TR order. So we have introduced a focus-background analysis in the Spanish word order phenomenon which has been difficult to solve under the theme-rheme frame.

Finally, we have considered interrelations between topic and focus and between these two factors and the definiteness. As a result, we can say that in Spanish the topic-order precedes the focus-order, and the topic must be constituted of definite noun phrase while the focus can be free from the definiteness of the NP.